

2022년 설 가정예배

온 가족이 모여 설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.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.

조용한 기도 다 함께
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,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,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.(에베소서 4:22-24)

찬 송 찬송가 557장 '예전의 동산처럼' 다 함께
기도 말 은 이
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, 지난 한 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. 이 자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. 주 안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3:1-13 돌아가며

- 1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, 내게 사랑이 없으면,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팽과리가 될 뿐입니다.
-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,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,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, 사랑이 없으면, 아무것도 아닙니다.
- 3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,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, 사랑이 없으면,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.

- 4 사랑은 오래 참고, 친절합니다.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, 뽐내지 않으며, 교만하지 않습니다.
- 5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,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, 성을 내지 않으며,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.
-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,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.
-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, 모든 것을 믿으며, 모든 것을 바라며,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.
- 8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, 방언도 그치고, 지식도 사라집니다.
-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,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.
- 10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,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.
- 11 내가 어릴 때에는,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,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,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.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,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.
- 12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마는,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.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마는,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,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.
- 13 그러므로 믿음, 소망, 사랑,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,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.

말씀 나누기 말 은 이
삶 나 누 기 다 함께

- 실천 1 지난 한 해 나의 삶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일지 이야기하고,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아쉬운 일을 꼽아봅니다.
- 실천 2 돌아가며 올해의 소망을 이야기하고, 함께 2~3분 정도 중보 기도합니다.

찬 송 찬송가 430장 '주와 같이 길 가는 것' 다 함께
주님의 기도 다 함께

말씀나누기

오늘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'설날'입니다. 한 해의 출발점에서 '새로운 시작'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'가족'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하게 되는 날입니다. 가족의 중요한 가치는 '같이', '함께'입니다. 노력하면 못할 일을 일이 없음을 알려 주는 속담 "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"도 잘 들여다보면 '같이' '함께'가 중요합니다. 같은 곳을 열 번 짚어야 나무가 넘어가지 여러 군데를 열 번 짚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.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가족이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 집중하면 그 길을 가는 데 능력이 생깁니다.

사실 하나 된 가정, 화목한 가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'사랑'입니다. 이는 단순히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울리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.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,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집중된 교회입니다. 신앙생활 할 때 은사만큼 부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들은 은사를 안에 꽉꽉 채워 놓기만 했습니다. 은사가 많으나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. 즉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, 안에만 꽉꽉 채워놓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.

오늘 본문 4~6절에 사랑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구분해 보면 '합니다'라는 것과 '않습니다'라는 것이 있습니다.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는 바로 이것을 뒤집어 놓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. 하라는 것은 안 하고,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었습니다.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?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. 성경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

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. 그런데 그 뿌리에 '사랑'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맙니다. 아무런 열매 없이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.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.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.

2022년 설 가정예배

